

■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미래 비전 설명회- 청년정책

통합, 지역서도 충분히 일하며 살아갈 환경 만드는 것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서구 '일자리스테이션 상무'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청년정책 비전 설명회'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과 연계한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통과 이후 실제 통합이 가시화함에 따라 청년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이날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부터 주거안정, 문화활동 및 생활지원, 지역 사회 참여에 이르기까지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통합특별법에 반영된 '청년발전기금'이 이러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임을 강조하며, 청년의 첫 경력 형성 지원, 취업 연계, 지역 정착 유도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청년들은 통합으로 인한 청년정책 변화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청년일자리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충분히 일하며



광주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주거 안정 등 정책방향 설명
일자리·청년발전기금 활용한 지역정착 지원 방안 등 논의
강기정 시장 "인 서울 아닌 인 광주 청년일자리특별시로"

살아갈 수 있는 '인 서울'이 아닌 '인 광주'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은 통합의 출발점일 뿐이

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광주의 장점과 전남의 장점을 모아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며 "통합특별법을 바탕으로 차별 없이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북구, 8년 연속 혁신 성과 빛났다!

'2025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혁신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정부 혁신평가'는 전국 지자체가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이루어낸 성과를 평가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대 항목 아래 10개 세부지표를 종합 점정했다.

평가 등급은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북구는 지난해 간부회의의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열린 구정회의'를 시작했고 '타운홀미팅', '구청 시책 보고회'를 개최해 구성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과 토론의 장을 펼치는 등 주민들과 혁신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 협력 활성화 분야에서도 두

각을 나타냈다. 자치구 지역화폐를 발행 논의를 주도해 100억 규모의 '부끄머니'를 발행한 점과 금융기관 18개소와 협력해 '소상공인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대표적인 협업 사례로 호평받았다.

이외에도, 광주에서 처음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아이맘 교통비 지원', '아픈아이 돌봄센터 조성' 등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체감도 높은 대표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북구는 평가 결과 상위 61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정부포상의 일환으로 기관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을 받을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주민 중심의 혁신 행정을 위해 노력해 온 공직자들과 주민들의 참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 화장2지구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화장동 122번지 일원 402필지 대상... 주민 재산권 보호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화장2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년 연말까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재조사 대상지 402필지를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한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화장2지구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화장동 122번지 일원 402필지로, 해당 지역의 면적은 11만 5,040㎡에 이른다.

이곳의 지적재조사는 내년 연말까지 진행된다.

남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해당 사업지구 내 지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계 설정 기준을 비롯해 조정금 산정 방법 등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올해 연말까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토지 현황 조사와 경계 설정 등의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는 오는 11월경 지적 확정 예정 조서가 통지될 것으로 보이며, 경계 결정은 내년 10월에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간 경계 분쟁에 따른 소송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땅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구 관계자는 "토지와 관련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적 분야의 스마트 행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칠석지구를 비롯해 도금지구, 양과지구, 석정·신장지구의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한 바 있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은 고령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포진은 평생 누적 발생률이 10~30%에 이르는 질환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65세 이상은 젊은 연령층보다 발생률이 8~10배 높고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이에 서구는 예방접종 비용 부담으로

서구, 어르신 건강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생백신 무료·사백신 일부 지원으로 백신 선택권 확대

접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질병 예방을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약 3000여 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생백신 무료 접종에 더해 재조합 백신(사백신) 접종 비용 일부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면역저하 등으로 생백신 접종이 어려운 대상자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 백신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백신은 1회 무료 접종을 지원하며 사백신은 총 2회 접종 가운데 1회에 대해 10만 원을 지원한다. 예방접종은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접종 기간은 16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다. 위탁의료기관은 서구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감염병관리과(062-350-41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대상포진은 어르신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질환이지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석석우 기자

13일 이호선 교수 강연... 동구아카데미 출발

심리·예술·건강·AI 특강, 연말까지 매월 둘째 주 개최

상담소', '유 퀴즈 온 더 블록' 등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강단에 올라 '공감에서 해방으로, 마음을 잇는 심리학'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보고 다스리는 방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낼 예정이다.

이어 4월 10일에는 문묘한 카운슬러가

'감정을 마주하면 길이 보인다'를 주제로 감정 이해와 회복에 대한 강연을, 5월 8일에는 방송인 김병조가 '행복의 비결은 웃음소리에 있다'를 통해 웃음과 행복의 의미를 전한다. 6월 13일에는 소설가 정용준의 '나를 생각하는 생각', 7월 10일에는 윤택림 교수의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잃는다' 강연이 이어진다.

하반기에는 고명한 작가의 '365일 설레며 일하는 법'(9월 11일), 한이준 도슨트의 '방방곡곡 미술관 여행: 슬기로운 전시생활'(10월 16일), 윤태정 아나운서의 '급변하는 AI시대,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11월 13일), 김원중 가수의 '대중음악으로 본 남도'(12월 11일) 등 다채로운 강연이 마련돼 있다.

동구 아카데미는 연말까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며, 세부 일정과 강의 내용은 동구청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인문도시정책과 평생학습팀(062-608-2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철수 기자

광주 동구는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2026년 동구 아카데미'가 오는 13일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올해 첫 문을 연다고 밝혔다.

동구 아카데미는 지난 2007년 시작해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동구 대표 교양 강좌로,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들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인문·심리·예술·건강 등 생활 밀착형 주제를 다루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첫 강연은 13일 오후 2시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tvN '이호선의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